

음식료/담배 | 증립(유지)

이슈: 올해 원유가격 리터당 922 원으로 전년대비 18 원 하락

낙농진흥회에서 올해 원유가격을 전년보다 18 원 하락한 리터당 922 원으로 결정했다. 원유 공급과잉 및 우유 소비부진을 감안한 결과이며, 2013년 원유가 물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가격이 하락했다. 원유가 하락으로 유업체,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며, 원유의 원가비중이 높은 유업체들의 수혜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탈지분유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이슈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유가격 922 원으로 결정

- 낙농진흥회에서 올해 원유가격을 전년보다 18 원 하락한 리터당 922 원으로 결정
- 통계청에서 발표한 15년 우유 생산비는 14년보다 33 원 감소한 리터당 763 원,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0.7%
- 생산비 감소액 33 원 중 지난해 원유가격 동결로 인한 인상 유보액(15 원)을 뺀 나머지 금액(18 원)을 인하
- 2013년 8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원유가격이 834 원에서 940 원으로 상승했으며,
- 원유 공급과잉으로 2014, 2015년은 원유가격 동결. 원유가 물가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원유가격 하락
- 최근 원유수급 불균형, 우유 소비부진 등을 감안한 결과이며, 원유가격 물가연동제는 현행대로 유지

유업체,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 점진적 완화 기대

- 유제품/빙과류 원가 중 원유가 50~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업체, 빙과업체들의 원가부담 점차 완화 전망
- 다만 시유, 발효유, 가공유, 빙과류 등 제품별로 원가비중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유제품의 원가비중이 높으므로 유업체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슈
-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의 시유 판매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시유부문 적자 축소 기대(원가율 80% 이상)
- 빙과업체는 탈지분유 함량이 높은 제품(튜케더 등)의 원가부담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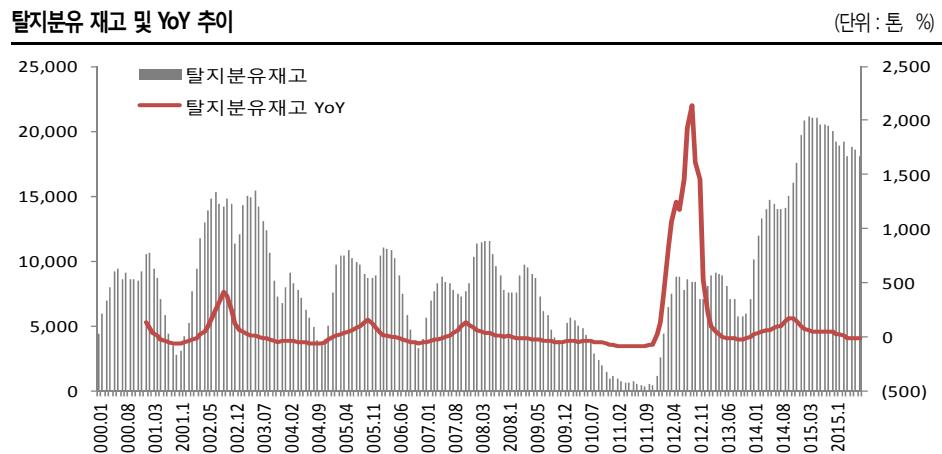
원유 공급과잉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원유가격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젖소 사육두수 증가가 공급과잉의 원인이며, 생산된 원유는 유업체에서 대부분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유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
- 2016.4 월 기준 탈지분유 재고는 18,030 톤으로 2015.3 월 21,150 톤에 비해 약 14.2% 감소했지만 평소 적정 재고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수준
-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농진흥회 차원에서 젖소 도축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점차 원유 공급과잉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보유중인 탈지분유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승)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에서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시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6개월 기준) 25% 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

Spot Comment



자료 : 낙농진흥회

주 : YoY는 우축